

# 樂善齋本 『忠烈俠義傳』의 惡人形象에 대한 탐색

김명신\*

##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작품의 줄거리
3. 忠과 奸의 갈등
4. 惡人の 類型
5. 맺는 말

## 1. 들어가는 말

낙선재 필사본 『忠烈俠義傳』은 清代 『忠烈俠義傳』 120회를 한글 고어로 완역한 것이다. 1면은 10행, 1행은 18자 내외로 되어 있으며 필사자에 따라서 간격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글자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부분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여타의 낙선재본과 마찬가지로 번역자나 필사자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 『忠烈俠義傳』은 『三俠五義』라고도 불리는 清代의 俠義公案小說이다. 청대 道光 咸豐 년간에 石玉昆이 京師에서 『龍圖公案』을 說唱하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기록하여 『龍圖耳錄』을 만들었고 謝藍齋의 필사본이 있다. 청대 무명씨가 『龍圖耳錄』에 근거하여 『忠烈俠義傳』으로 개편하였다.<sup>1)</sup>

판본으로는 清代 光緒 5년 北京 聚珍堂 活字本이 있는데 卷을 나누지 않고 1면에 10행, 1행은 12자로 되어 있으며 최초의 간행본이다. 앞머리에 間竹主

\* 高麗大 中文科 講師

1) 朴在淵, 『조선시대 중국 통속소설 번역본의 연구』, 외국어대 중국어과 박사논문, 1993. 2. 451-467쪽 참조.

人, 退思主人 및 入迷道人의 3편의 서문이 있고 현재 中華書局, 廣東人民出版社 등의 排印本이 있다.

『忠烈俠義傳』의 연출자 石玉昆은 孫楷第에 의하면 字가 振之로 天津 사람으로 그의 설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宋代 包公案을 편찬해낸 것 중에 성취를 이룬 것은 당대의 石玉昆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고 한다. 石玉昆은 道光 연간의 說書人으로 생졸 기간은 대략 嘉慶 15년(1810)-同治 10년(1871)이라 알려져 있다. 『老書館見聞瑣記』에 의하면 그가 일찍이 禮王府의 供奉를 지낸 적이 있고 石玉昆의 계승자의 傳에 의하면 石玉昆이 일찍이 衛門에 봉직한 적이 있어서 公案과 俠義를 완벽하게 결합한 작품을 써낼 수 있었다고 한다. 石玉昆이 엮은 『龍圖公案』(『包公案』)은 다만 대본일 따름이고 당시인의 기록에 따르면 연설 부분만을 남겨두고 唱詞를 삭제하여 『龍圖耳錄』이라 제했다고 한다. 이후에 問竹主人이 장편의 장회소설 『忠烈俠義傳』(『三俠五義』)로 개작하였지만 여전히 石玉昆의 성명을 앞에 덧붙이고 있다.

『忠烈俠義傳』의 사상적 특징은 평범한 편이지만 사물을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고 平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간혹 세대를 두드러지게 묘사하거나 해학적인 내용이 섞여 있고 특히 강호의 好漢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단히 넓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으니 이후 속서 『小五義』<sup>2)</sup>, 『續小五義』<sup>3)</sup>, 『英雄大八義』<sup>4)</sup>, 『英雄小八義』<sup>5)</sup>, 『七劍十三俠』<sup>6)</sup> 등이 생겨났다. 비록 대

2) 『小五義』는 작자 무명으로 전 124회이다. 그 내용은 盧珍, 韓文錦, 徐良, 白芸生, 艾虎 등의 5인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인물 묘사가 생동적이나 구조가 다소 산만하다.

3) 『續小五義』는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 124회로 되어 있다. 전반적인 내용은 襄陽王의 포획을 기본으로 하고 淸官이 사건을 심리하는 고사는 극히 적다. 관리의 살육행위를 무비판적으로 묘사한 것이 단점이다.

4) 『英雄大八義』는 작자 미상으로 민간에 간행본이 대단히 많다. 전체 내용은 보물을 잃고 찾는 것으로 전개되고 그 중에 武林의 파벌과 승려, 도사간의 은원과 갈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평론계에서는 이 책을 『善惡圖』라고 일컫기도 한다.

5) 『英雄小八義』는 작자 미상으로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고 회를 나누지 않고 있다. 민간에 유행하는 간행본이 대단히 많다. 작품 외에도 연출본과 해방 이전의 上海新文化書社에서 출판한 說唱本이 있다고 한다. 주요 줄거리는 杏花山, 通天島, 于家堡 등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모두 무예 겨루기의 내용에 속한다. 그 중에는 金刀聖母와 鐵羅漢이 법술을 겨루는 신기한 내용과 일련의 애정 고사가 섞여 있다.

6) 『七劍十三俠』는 唐芸洲가 編次한 것으로 일명 『七子十三生』이라고 한다. 모두 3집 180회이다. 이 작품은 무협소설사 상에서 劍俠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淸末 劍俠小說의 대표작이다.

체적으로 천편일률적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방대하여 상당히 많은 독자들을 보유하고 있다.<sup>7)</sup>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은 선하고 충성스러운 인물이지만 이들만으로는 작품을 완성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주요 행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인물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인물들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해주고 전반적인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을 제외한 주변인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인물에 대한 탐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낙선재본 『忠烈俠義傳』의 악인형상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규명해 보도록 하겠다.

## 2. 작품의 줄거리

『忠烈俠義傳』은 다양한 공안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다. 『忠烈俠義傳』의 주요 부분을 보면 包公 고사를 묘사하면서 俠客이 淸官을 도와 폭도를 제거하고 양민을 안정시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앞의 40회는 포공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며 기이한 사건을 간파해내는 고사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이후의 내용은 협객들

---

작품 중에서는 儒家, 道家 사상과 중국 전통적 俠義精神을 결합하여 검객 수련의 기본으로 삼게 하였고 검술의 高低 구분을 제기하여 후세 검협소설의 창작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民國 시기의 『江湖奇俠傳』, 『蜀產劍俠傳』 등의 작품은 모두 『七劍十三俠』의 계발을 받았다.

- 7) 『三俠五義』와 그 속서들은 구상이 세밀하고 전반적으로 해학적인 기조가 충만한 희극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石玉昆이 『小五義』, 『續小五義』의 작자라 알려진 경우도 있지만 苗懷明은 『三俠五義』와 비교하여 公案 성분이 적고 『小五義』 중에 『三俠五義』에 대한 비평이 여러 군데 있으며 『小五義』 前41회와 『三俠五義』 後18회 분량 차이 등의 이유를 들어서 동일한 작자가 아니라고 고증하고 있다. 李軍, 『『三俠五義』及續書藝術特色一二』, 『湖北師範學院學報』, 제 22권, 2002. 제1기, 119-121쪽. 苗懷明, 『『三俠五義』與『小五義』『續小五義』關係辨』, 『信陽師範學院學報』 제19권 제3기, 1999. 7. 102-105쪽 참조.

이 다부어 폭도를 제거하고 양민을 안정시키며 포공과 顔查散을 도와 조정 내의 간악한 龐太師와 모반을 꾀하는 襄陽王 등과의 투쟁을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은 明代 成化 연간 이래의 『包龍圖公案詞話』의 전통을 이어 받았기 때문에 제1회부터 제4회까지 포공의 출신에 대한 묘사에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섞여 있지만 결국 그를 초월적 존재에서 보통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清官의 전형으로 만들고 있다. 청관의 성격에 대한 풍부한 묘사는 시민적인 분위기를 갖추고 있다. 작품 중에서는 포공의 성격적인 약점과 그가 오판한 사건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대 포공을 소재로 한 公案 문학 작품 중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것이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俠義人物들은 포공을 대체하는 진정한 주인공이 된다. 그들은 官府를 도와서 폭도를 제거하고 양민을 안정시키며 범인을 체포하는 활동을 하는데 작품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황홀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단락을 구성하고 있다. 협객의 성격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작품 중에는 南俠 展昭는 강건하고 대범하고 北俠 歐陽春은 외유내강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雙俠 丁兆蘭과 丁兆蕙는 빼어나면서 소탈하고 翻江鼠 蔣平은 병약하면서도 치밀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고 錦毛鼠 白玉堂은 비범하면서 자유롭고 편협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다각적이고 다양한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는 능력은 작자의 뛰어난 기교를 드러내는 것이다. 작품 중에서 묘사되는 혐의인물은 은혜를 갚기 위해 홀로 왕래하는 聶隱娘<sup>8)</sup>이나 虬髯客<sup>9)</sup> 과도 다르고 부자를 죽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하늘을 대신하여 도의를 행하는 梁山泊의 好漢들과도 다르다.<sup>10)</sup> 이

8) 聶隱娘은 唐代 裴鏞이 지은 傳奇 『聶隱娘』의 여주인공으로 열 살이 되던 해에 여승에게 유괴되어 무예를 배우고 돌아와 탐관오리와 악인을 징벌한다.

9) 虬髯客은 唐代 俠義愛情小說 『虬髯客傳』의 주인공이다. 작품 중에서는 호방하고 자유로운 협의인물과 더불어 女俠 紅拂을 창조하고 있다. 虬髯客은 권세가 楊素의 저택에서 도망 나온 호걸 李靖과 紅拂이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도와주고 있는데다가 원대한 계획을 세워 해외로 나아가서 扶余國을 세운다. 虬髯客 형상과 함께 돋보이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기녀 紅拂이다. 紅拂은 楊素의 집에 있었던 아름다운 기녀로 李靖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그가 묵고 있는 여관으로 찾아가고, 紅拂은 楊素의 권세가 이미 기울어졌음을 알고 李靖에게 도망쳐 온 것이었다. 李靖은 미녀를 얻어서 대단히 기뻐했지만 한편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다. 도중에 虬髯客을 만났는데 그가 李靖과 紅拂에게 집과 돈을 주고 떠난다. 紅拂은 애정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띠고 있는 여협으로 표현되고 있다. 김명신, 『清代 俠義愛情小說의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0. 6. 18-32쪽 참조.

10) 『水滸傳』의 영웅들은 『忠烈俠義傳』의 협객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들은 대부분 벼슬을 하

작품에서의 험객은 어떤 사람은 벼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집안에 거하고 있는 등 각기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황실을 위한 노예나 보조자가 아니며 반은 여행객이고 반은 친구이자 반은 주인인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황실에 고용된 사설 탐정이라 할 수 있겠다.

### 3. 忠과 奸의 葛藤

고전소설에서 인물은 善人和 惡人이 대립하는 구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忠烈義俠傳』의 경우에도 선과 악이 대립된 가운데 결말은 권선징악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상정해 놓고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작품 중에서 대체적으로 선은 忠孝, 義理, 犧牲, 愛情 등의 개념으로 대표되고 있으며 악은 貪慾, 거짓, 不倫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작품의 인물은 인물 자신의 특징을 드러내는 동시에 작품 창작 당시의 사상 체계나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야 하겠다.

현대에는 善과 惡이 공존하고 있고 선악에 대한 관념을 명확히 판단하기 힘든 시기이다. 이와는 반대로 고대는 선과 악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에 대한 평가도 분명하다. 특히 고전소설의 등장인물은 작자와 독자에 의해서 선과 악이라는 잣대에 의해 완벽히 구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1)</sup> 작품 중의 惡人들도 이미 악인이라는 전제 하에서 묘사되고 있으나 가끔은 회개하는 경우도 있고 씩씩한 영웅의 기상을 띠고 있는 경우도 있다.

『忠烈義俠傳』에서는 선과 악이 대치되는 구도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점은 작품의 매력을 잘 발휘하게 하는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에 와서 선악의 대립구조는 난순함의 극치로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선과 악, 미

---

지 않는 민간 영웅들이고 官府와 대립되는 존재이며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여 梁山泊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忠烈義俠傳』의 험객들은 北俠 歐陽春을 제외하고 대부분 관부에 소속되어 험의를 펼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11) 김명신, 「악녀, 숙녀 그리고 俠女」, 『中國小說論叢』 19집, 2004. 3. 27. 175-193쪽 참조.

와 추, 아군과 적군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분법적 구조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도 이러한 구도를 가진 작품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 중에는 선과 악의 충돌을 충과奸의 투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충과 간은 고대에 끝은 신하와 아첨하는 신하를 구분하는 중요한 윤리 척도이다. 신하의 충성은 君主의 사직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사회 체제에 대한 옹호 및 신봉을 포괄하고 있다. 충에 대한 문제는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따라서 忠奸의 투쟁은 조정 내부의 알력, 왕조의 교체 내지 민족 투쟁 등 중대한 정치적 군사적 사건과 역사적 변고 등과 결합되었고 충신에 대한 동정과 흠모 및 간신에 대한 통분과 폭로도 항상 그 안에 기탁되어 있다고 하겠다.<sup>12)</sup>

『忠烈義俠傳』의 등장인물을 忠과奸의 입장에서 구분하자면 包拯과 俠義人物들이 충신에 속하고 襄陽王과 그의 무리들이 간신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대립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갈등과 투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보전하고자 한다. 작품 중에는 양양왕 집단 이외에도 수많은 악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奸臣 부류에 해당되는 인물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하겠다.

## 4. 惡人의 類型

### 1) 龐昱—방자한 탐관오리

安樂侯 방욱은 龐太師의 아들로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방자하게 지내고 진흙을 발굽하지 않고 유용하였으며 민간 여자를 겁탈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곤 하였다. 그는 묘당에서 분향하고 있는 金玉仙을 보고 그녀를 납치하고 그녀의 남편 田起元을 옥에 가둔다. 그의 비리는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시정하거

12) 王立 著, 『中國古代復仇文學主題』,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8. 425쪽 참조.

나 고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전기원의 하인 田忠은 목숨을 무릅쓰고 그 사정을 包拯에게 고발하기에 이른다.

쇼인의 성명은 전충(田忠)이니 곳 진주(陳州) 사람이라. 다만 방태스(龐太師)의 오조 안락후(安樂侯) 방욱(龐昱)이 성지를 밟드려 진주의 니르러 진흙을 밟급히더니 뉘 알리오. 방욱이 아오로 진흙을 밟급지 아니코 그 곳의 화원을 지으며 민간 녀즈를 겁탈하느니라. 나의 주인은 전기원(田起元)이오 주모는 김시(金氏) 옥선(玉仙)이러니 존 괴유명호를 인하여 단지하여 약을 쓰미 노태의 병환이 낫거늘 주미 묘당의 가서 분향치사하다가 의외에 방욱의 규시호 반 되어 위력으로 겁탈하여 가고 또 나의 주인을 본현의 보내여 옥중의 가도느니라. 노태대 이 소식을 드르시고 놀나 기세히시거늘……(4:38, 39)<sup>13)</sup> (小人名喚田忠, 乃陳州人氏, 只因龐太師之子安樂侯龐昱奉旨前往賑濟, 不想龐昱到了那裏, 並不放賑, 在彼蓋造花園, 搶掠民間女子, 我主人田起元, 主母金氏玉仙因婆婆染病, 在廟裏許下願心, 老太太病好, 主母上廟還願, 不意被龐昱窺見, 硬行搶去, 又將我主人送縣監禁, 老太太一聞此言時, 生生嚇死, ……) (제8회 65, 66쪽)

田忠이 고발한 사실을 알고도 방욱은 포증이 부친 龐太師의 문생임을 믿고 자신을 어찌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陳州 太守 蔣完의 건의에 따라 項福이라는 용사를 고용하여 포증을 암살하려 시도한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南俠 展昭가 엿들음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치고 만다. 방욱은 포증이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착각하고 자신의 죄목을 인정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결국 그는 죄에 대한 벌로 용머리 찰도로 처단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항복은 개머리 찰도로 사형을 받고 죽는다.<sup>14)</sup>

## 2) 龐吉—끈질긴 무고자

龐吉은 황제의 인척으로 太師가 되어 동료들을 능멸하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며 아첨하는 신하였다. 그는 包拯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 있어서 기회만 되면 포

13) 樂善齋本『忠烈俠義傳』의 권수와 쪽수를 가리킨다.

14) 公孫策이 낙방한 才子이지만 학문이 해박한 인물로 '杏花雨'라는 다리미 비슷한 刑具를 창안하고 (제19회) 황제가 하사한 鋤刀를 용머리 찰도, 범머리 찰도, 개머리 찰도 세 가지 모양으로 고안하였다. (제9회) 이 세 가지 찰도는 包拯이 신분에 따라서 공정하게 형벌을 집행하는 상징물이 된다.

증을 끌어내리려고 하여 3차례나 포증을 무고하는 사단을 일으킨다. 그는 포증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일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다가 한 번은 도사 邢吉더러 포증에게 주술을 걸어 죽게끔 사주한다.

차설. 방길(龐吉)이 경허 방복(龐福)으로 더브러 서지의서 니르디. “금일의 하늘이 밝으면 임의 늑일이 되었시니 명일은 곳 가히 성공허리니 비록 으즈 죽인 원슈를 갓았시나 다만 시신을 온전이 허여 죽게 허미 제계 죠히 되엇도다.” 허더니 언미필의 다만 드르미 크게 소리나며 뉴리창을 썬치고 일기 선혈이 남니흔 사람의 머리 드러오 거늘 방길이 홀연 대경허여 거의 교의 우희서 구리질 듯허며 방복도 놀나 몸을 움죽이지 못허디니 반향을 지체허여도 아모 동정이 업는지라. (8:61, 62) (凡說龐吉正與龐福在書房。說道：“今日天明已是六日。明日便可成功。雖然報了殺子之讎。只是便宜他全屍而死……”剛說至此。只聽得口克啞的一聲。把窓戶上大玻璃打破。擲進一個毛茸茸血淋淋的人頭。龐吉猛然吃這一嚇。幾戶在椅子上栽倒。旁邊龐福嚇得縮作一團。運了半晌。並無動靜。) (제21회 156쪽)

이처럼 龐吉은 포증이 틀림없이 죽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었으나 형질이 방길의 화원에 범단을 차려 놓고 포증을 저주하다가 展昭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고 버려지고 있다. 포증은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황제에게 상주하여 방길은 3년 감봉 처분을 받게 된다.

다음은 龐吉이 자기 생일에 손님들과 복어를 먹고 나서 벌이는 해프닝을 묘사한 것이다.<sup>15)</sup>

방길이 듯고 죽기의 종인으로 허여금 썰니 인분탕을 가져오라 하니 잠시간의 하인이 슈망각난허여 었지 할 줄 모르더니 도로혀 일기 가인이 주의물 니여 낭기 종인을 불너 큰 칙상 우희 노힌 비취옥으로 놓을 삭이고 낭편의 금골희 달닌 병을 마조 들고 오라 허며 또 탁조 우희 일지 양지 비취옥으로 년엽꺾치 민든 완을 낭인을 주며 저의로 허여금 칙간의 가서 죽기의 인분을 담아오디 만홀스록 죠타 하니 (15:8, 9) (龐賊聽了。立刻叫虞候僕從：“快快拿羹湯來”。一時間下人手忙脚亂。抓頭不是尾。拿拿這個不好。動動那個不安。還是有個虞候有主意。叫了兩個僕從將大案上擺的翡翠碧玉鬧龍瓶。兩邊獸面衝着金環。叫二人擡起。

15) 현대소설에서 악인형상은 먹는 일과 남녀간의 일, 그리고 가족의 울타리에 극단적인 집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낙선재본 『忠烈義俠傳』에서도 악인은 인간의 본능에 해당하는 일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姜鯨求, 「중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악인연구—老翁의 『四世同堂』과 巴金的 『家』를 중심으로. 『中國現代文學』 제23호, 2002. 12. 199-226쪽 참조.

又從多寶閣上拿起一個淨白光亮適羊脂白玉荷葉式的碗交付二人，叫他們到茅廁裏即刻再來，越多越好。(제43회 301, 302쪽)

방길은 손님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다가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촌극을 벌이고 말아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또 실수로 애첩 두 명을 살해하게 된다.<sup>16)</sup> 그리하여 자신의 문생이자 어사 벼슬을 하고 있는 廖天成을 청하여 그 일을 상의하게 되는데 그는 방길을 부추겨 엉뚱하게 開封府의 포증쪽에서 사람을 살해하였다고 무고하게 된다. 그러나 白玉堂이 상소문에 쪽지를 끼워 넣어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 방길은 연이은 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포공을 무고하게 된다. 마침 趙慶이라는 자가 包公의 조카 포삼공자 包世榮의 횡포를 고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趙虎가 우연히 조경을 만나게 되어 포증에게 상소하라고 충고하지만 일이 공교롭게 되어 방길에게 고발하는 일이 벌어진다. 결국 武吉祥이 포세영을 가장한 사기 사건임이 밝혀지고 龐吉은 봉급 전액몰수와 조정 출입금지를 당하게 되고 孫榮과 廖天成은 관급을 3등급 낮추게 되는 벌을 받는다.

### 3) 襄陽王—간악함의 최고봉

이 작품 중에 간악함의 최고자는 襄陽王이다. 그는 간신일 뿐만 아니라 온갖 사악함의 화신이라 볼 수 있다. 그는 황제의 숙부이기 때문에 황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제88회에서 충신 중의 하나인 金輝가 襄陽王의 잘못을 진언하였다가 오히려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폄적당하게 된다. 양양왕 측에서는 이미 馬強의 죽음으로 인하여 세력이 한풀 꺾이고 김휘의 일까지 터지자 이제는 충신들을 살해하고자 계획한다. 기고만장한 양양왕은 남의 전지를 빼앗고 아녀자를 약탈하며 아이들은 광대를 만들어 재미의 대상으로 삼는 등의 악행을 자행하고(101회) 게다가 그는 황제의 지위를 넘보고 황제처럼 集賢堂

16) 작품 중의 악인들은 항상 나쁜 것을 공모하고 실행하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만다. 또한 그들의 행위는 지나치게 빈틈이 많거나 우스꽝스러운 면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은 악인들이 선인들보다 열등한 존재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설정인 것이다.

을 세워서 여러 호걸들을 거느리고 있다. 한편으로 양양왕은 신변의 위험을 깨달아서 顔査散 편에 탐색자를 보내어 사실을 탐지한다.

양: 왕(奸王)이 안순안의 곳으로 탐지하여 보려는 말을 듣고 다만 괴물 너여 크게 소리하여 니르디, “과인(寡人)은 당금 황숙이어늘 안스산(顔査散)은 엇던 슝이완디 감히 나를 나획하여 빅성을 위하여 보슈설한헌다 호노뇨? 이 말이 너모 더단헌니 실노 슝으로 하여금 가히 분흐염죽 호도다. 제 포흑즈(包黑子)의 문싱이플 밋고 감히 나를 멀시헌니 니 만일 저로 하여금 이곳에서 조히 관원이 되게 홀진디 엇지 능히 디스를 일우리오. 반드시 계교를 베푸러 저를 히히리니 첫지는 흥중의 분을 풀고 돌지는 또호 거스호미 조호리라.” (34:66, 67) (奸王聽了探報之言, 只氣得怪叫如雷道: “孤乃當今皇叔, 顔査散他是何等樣人, 擅敢要捉拿孤家與百姓報仇雪恨! 此話說得太大了, 實實令人可氣! 他仗的包黑子的門生, 竟敢藐視孤家. 孤家要是叫他好好在這裏爲官, 如何能覈成其大事? 必須設計將他害了. 一來出了這口惡氣, 二來也好舉事.) (제102회 706쪽)

襄陽王은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고 포중과 협의인물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顔査散의 印信을 도적하도록 명령한다.(103회) 그 일에 대해서 鄧車가 자원하였고 申虎가 보조하기로 결정하였다. 등거가 인신을 도적하는 데 성공하여 인신을 逆水泉에 던져버리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협의인물 편에서 蔣平을 비롯한 五義 일행이 역수천에 들어가서 인신을 건져내게 된다. 결국 안사산 등의 충신들을 망신 주려던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양양왕이 성공을 거둔 계획은 冲霄樓를 짓고 銅網陣을 베풀어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한 일이다. 본래 小諸葛 沈仲元<sup>17)</sup>이 동망진의 위험성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의리를 맺어진 오형제(五義) 중의 하나인 白玉堂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백옥당의 죽음으로 인하여 양양왕에 대한 증오가 더욱 불타올라서 협의인물들이 그를 처치하기 위해서 襄陽으로 향한다.(120회) 그는 작품의 말미에서 간략하게 찰도로 처단 당할 운명임이 예고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小五義』에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17) 小諸葛 沈仲元도 지모를 가진 參謀型的 협의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작품 중에서 그에 대한 언급은 公孫策이나 蔣平, 智化에 비해 상당히 못 미친다. 그러나 그의 별호 小諸葛에서도 알 수 있듯이 諸葛孔明 이상의 지략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4) 馬強--탐욕스런 호족

馬強은 본래 太歲莊 馬剛<sup>18)</sup>의 사촌 동생이자 태감 총관 馬朝賢의 조카이다. 그는 숙부의 권세를 믿고서 남의 전지와 가산을 마구 빼앗고 부녀를 노략하며 집 안에는 招賢館을 짓고 각처의 영웅과 호걸을 초빙하였다.(72회) 그래서 襄陽王 趙爵도 그의 세력이 대단한 것을 보고서 그와 왕래하게 되었다. 그의 횡포가 너무 지나치자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해졌는데 새로 부임한 관리 杭州太守 倪繼祖가 그 실태를 조사하러 나오게 되었다.

한편 翟九成이 馬強의 돈을 갚지 못하자 마강의 하인 馬勇은 적구성의 외손녀 鏞娘이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돈 대신 그녀를 납치해 오도록 부추긴다. 마강은 鏞娘을 창탈하여 음란한 욕심을 채우려고 하였지만 금냥이 그에게 가위로 찌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욕망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한 와중에 적구성이 목을 매어 죽으려 하다가 歐陽春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開封府에 고발하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적구성은 개봉부가 너무 멀어 주저하자 구양춘의 여비를 주는데 倪忠이 나타나서 신임태수에게 고발하라는 충고를 하고 倪繼祖는 적구성에게 고소장을 써준다. 그런데 마강 측에서 예계조가 신임태수임을 눈치채고 그를 납치하여 감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마강 부인 郭氏의 하녀로 있게 된 朱絳貞이 倪繼祖와 鏞娘을 몰래 풀어 주자 倪太守가 아문으로 돌아가서 마강을 구속하여 그의 죄를 추궁한다.

마강(馬強)이 니르더, “노야는 스포 태슈시어늘 엇지 능히 쇼인의 혼장의 니르시게 하며 임의 노애 쇼신의게 속아 가시고 또 디옥의 갖챳다 호실진디 엇지 금일의 노애 일항 공당의 니르러 공스롤 처결하시느니잇가? 이긋치 위력으로 심문하시른 쇼인이 실노 죄를 당키 어려오리라.”……하여 일변으로 이십번 입을 친디 선혈이 럼리하여 흐르게 하며 문호하여도 승복지 아니커늘 또 분부하여 쓰어니여다가 슝십지 디곤을 치디 제 막음의 결단하고 종시 공초치 아니호는지라. (26:23, 24) (馬強道: “大老爺乃四品黃堂, 如何能到小人莊內? 既是大老爺被小民誑去, 又說下在地牢, 如何今日大老爺仍在公堂問事呢? 似此以大壓小的問法, 小人實實喫罪不起.”……一邊掌了二十嘴巴, 鮮血直流, 問他不招, 又吩咐拉

18) 馬剛도 온갖 횡포를 부리고 항상 반역할 마음을 품고 있는 자였다. 그는 부친 馬朝賢의 세력을 믿고 자기 멋대로 굴며 세도를 부리곤 하였다.

下去, 打了四十大板, 他是橫了心, 再也不招。) (제76회 532쪽)

뻔뻔스러운 馬強은 자신이 倪繼祖를 가둔 적도 없고 다른 행위들도 전혀 한 일이 없다고 우기며 자신의 죄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악인 형상 중에 상당히 똑똑한데다가 배포도 큰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마강의 무리들은 예계조가 歐陽春과 모의하여 마강의 가산을 강탈하였다고 모해하는 한편 마강의 하인 姚成이 상경하여 고소하여 大理寺 文彥博이 이 公案을 담당하게 된다.(77회) 게다가 馬強은 자신의 친척 馬剛과 馬朝賢과 결탁하여 사건은 점점 커져가게 된다. 결국 智化가 고심하여 계책을 짜내고 위증을 만들어 마강은 참형에 처해지게 된다.(84회)

##### 5) 鍾雄—회개한 호걸

鍾雄은 별명이 飛叉太保로 襄陽王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자 오른팔로 의리로 맺어진 오형제(五義)중의 하나인 白玉堂의 해골을 맡게 된다.

양: 왕(襄陽王)이 일기 스기독을 보너며 말하더 이는 동경(東京)을 크게 들넨 금모서(錦毛鼠) 白玉堂의 희골이니 쇼테의 곳으로 보너노라 호엿거늘 쇼테 저의 일기 영웅이물 생각하여 저를 오봉녕(五峯嶺) 우허 밍창하고 쇼테 도로혀 한 번 친히 치제호엿시더 오죽 스펀이 이 독을 도적호여 갈가 두려 그 분묘 앞허 미화 강참을 파고 스펀을 파당호여 슈직게 호여 썬 불우지변을 방비케 호엿더니 여러 날이 못되여 곳 낭인을 줍미 일인은 서경(徐慶)이오, 일인은 전쇠라. 서경은 임의 도주호고 전쇠는 쇼테가 호헌 평일의 그 위인을 익이 아는지라. 윈러 저로 호여금 일기 심복인(心腹人)을 슴으려 호엿더니 의외의 제 고집호고 응낙지 아니호는지라. 이러므로 인호여 저를 벽운인(碧雲崖)의 슈금호엿노라. (38:37, 38) (襄陽王送了一個蠻子來, 說是大鬧東京錦毛鼠白玉堂的骨殖, 交到小弟處, 小弟念他是個英雄, 將他葬在五峯嶺上, 小弟還親身祭奠一回, 有恐有人

19) 智化는 別號가 黑妖狐로 杭州 霸王莊 馬強의 장원에 잠시 기탁했다가 신임 杭州太守 倪繼祖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혐의인물들과 합류하게 된다. 그는 艾虎의 사부로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지략에 뛰어난 데다가 무예 실력까지 겸비하였다. 지화는 후반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79회에서 九龍珍珠冠을 이용하여 馬強과 馬朝賢을 제거하기 위한 계책을 세운다. 이 과정에서 包拯은 艾虎의 僞證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盜去此壘。就在那墳家前刨了個梅花塹坑。派人看守。以防不虞。不料遲不多日。就拿了二人。一個是徐慶。一個是展昭。那徐慶已然脫逃。展小弟也素所深知。原要叫他作個幫手。不想他執意不肯。因此把他囚在碧雲崖下。) (113회 777쪽)

鍾雄은 白玉堂이 영웅임을 고려하여 그의 유골을 五峯嶺 위에 매장하고 그 주위에 구덩이를 파고 사람을 시켜 파수보게 한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의 지략도 혐의인물 편인 사람들 못지 않게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종용은 徐慶과 展昭를 사로잡게 된다. 그 후 서경은 혐의인물들에게 구출되었지만 전소는 아직 구출되지 않은 상태였고 종적조차 알 수 없었다. 그래서 歐陽春, 智化 등이 종용에게 투신하여 沙龍과 展昭를 구해내려 하였다.

鍾雄은 혐의를 숭상하는 사람으로 襄陽王의 야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에게 충실히 행동한다. 그는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즉시 고치고 바로 행동하는 면을 보이기도 한다.

즉각의 우후의게 분부하여 썰니 선척 민드는 곳의 가서 목지를 휘하여 현판을 갖춰 띠들나 호고 삼인이 잔을 맞고와 마시며 서로 의논하니 모다 혐의를 숭상하는 말이라. 종용이 더락하여 슈무족도하며 서로 만나를 늦게 하였시를 한하고 정원으로 구양춘과 지화로 더브러 결위형대하려 호거늘 지화 종용의 영걸을 보고 또 저를 항복 바들 뜻이 이시므로 인하여 다만 응낙하니 뉘 알니오 종용은 성품이 급한 슴이라. 당직의 우후로 하여금 향축을 조초게 하며 년치 차례로 신명기 비례하여 명세하니 구양춘이 장형이 되고 종용이 지척 되며 지화 데삼이 된지라. 결의한 후의 다시 좌명하여 서로 데형이라 부르며 일장 쾌락하미 비홀 씨 업더니 (38:28, 29) (立刻吩咐處候即到船場。取木料改換匾額。三人傳杯換盞。互應議論。無非是行俠尚義。把個鍾雄樂的手舞足蹈。深根相見之晚。情願與北俠。智化結爲異姓兄弟。智化因見鍾雄英爽。而且有意收伏他。只得應允。那知是個性急人。登時叫處候備了香燭。敍了年庚。就在神前立盟。北俠居長。鍾雄次之。智化第三。結拜之後。復又入席。你兄我弟。這一番暢快。樂不可言。) (112회 775쪽)

이처럼 鍾雄의 성품에 반한 智化와 歐陽春 등은 허물없이 사귀고 결의형제가 된다. 지화나 구양춘은 매우 신중한 사람으로 아무렇게나 惡人과 의형제를 맺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전에 지화가 미리 종용의 수채로 몰래 잠입하여 그에 대해 알아보고 나서 다시 종용에게 투신하러 온 것이었다. 지화가 처음 그를 보고 나서 내린 평가는 다음과 같다.

지혜 슈치 안 광경을 말하고 또 니르디 “중웅은 일기 유용자인이어늘 가석호든 보좌 하는 재 업스므로 필경 지조를 올케 쓰지 못하며 들지는 저의 곳의 임의 현스 부르는 방을 거러시니 명일의 나와 다뭇 구양형이 문져 가서 투항호고 엇더훈가 보리라.” (38:8, 9) (智爺將寨內光景說了。又道：“鍾雄是個有用之材，惜乎缺少輔佐，竟是用而不當了。再者他那裏已有招賢的榜文，明日我與歐陽兄先去投誠，看是如何。) (112회 771쪽)

鍾雄은 비록 처음에는 襄陽王의 편에 있었지만 俠義를 숭상하는 사람으로 智化의 계략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도리를 깨닫고 包拯을 비롯한 협의인물 편으로 돌아서게 된다. 그는 잘못을 알면 곧바로 고치는 성품을 지닌 호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 6) 鄧車—도둑질의 대가

鄧車는 神手大聖이라는 별호를 가졌을 정도로 도둑질을 잘 하는 인물이다. 그는 청렴한 관리 顏查散의 印信을 절도하는데 성공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103회) 그는 머리도 영리하여 申虎를 속이고 자기 혼자서 인신을 취하여 襄陽王 편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등거는 자기가 가지고 온 인신을 협의인물들이 다시 물에서 건져내어 자기를 우롱하자 화가 나서 顏查散을 살해하기로 결심한다. 이처럼 자존심이 강한 鄧車지만 어쭙찮은 자비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등게 두고 심중의 가장 불편히 너겨 생각하디, ‘화호접이 너모 인정을 두지 아니코 이는 또 저의 집이 아니어늘 무슨 곡절노 문득 그 도스를 밧타하여 죽이려 호는뇨? 비록 분귀를 풀너 호미나 나도 호호 구귀호미 잇느니 니 만일 도저히 저를 막으면 또 두리 건디 제 나를 우셔 말하디 일을 경녁지 못하여 담이 너모 적다 홀지라. 니 모롬죽이 여츠: 호변 제 반드시 필연 홀 말이 업스리라.’ (23:7, 8) (鄧車聽了心中好生難安。想道:‘花冲也太不留情了。這又不是他家，何苦把個道士活活的治死。雖爲出氣，難道我也不嫌概忌諱麼? 我若十分攔他，又恐他笑我，說我不擔事，膽特小了也罷。我須如此，他大約再也沒有說的。’) (67회 467쪽)

蔣平에게 낭패를 당한 花冲이 등거를 찾아왔는데 마침 그 날이 등거 자신의 생일이었다. 생일 잔치로 인하여 집안이 흥겨움으로 넘쳐 있었지만 화충이 장평을

알아보고 그에게 죽도록 매질을 가하자 마음 속으로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된다. 동계는 간악한 양양왕 편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천박한 심성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양양왕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던 小諸葛 沈仲元의 도움으로 韓彰이 등거를 잡고 나서 公孫策 등이 그를 회유하게 된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을 친구처럼 잘 대해주자 비루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 襄陽王의 가장 큰 오른팔이 鍾雄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자백하고 만다.

## 7) 花沖—음란한 공자

악인 형상 중에서 花沖에 대한 묘사는 비교적 다양하게 드러나는 편이다. 그에 대해서 路雲亭은 花俠이고 결코 일반 부녀에게는 음란한 손길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sup>20)</sup>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우선 화충은 협객의 일원이라고 볼 수 없다. 작품 중에서 그가 협행을 펼쳤다는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또 고강한 무예를 지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武人으로서의 능력일 따름이지 협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협객은 무예만을 지니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합당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가 단지 비구니나 행실이 나쁜 여인들과 화간을 하였다는 주장 역시 수긍할 수 없는 대목이다. 다음의 예문에서 그 점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만일 화충의 형격을 의논홀진디 또한 소년 공자의 모양이오, 무예는 또 고강허더 제 가장 쫓 곳튼 부녀 싸라기틀 죠허 너겨 미양 야간이면 단이더 귀 밋혀 반드시 일기 호접 빈혀를 쫓는지라. 니러므로 인하여 슝이 모다 저를 화호접이라 부르고 미양 열요흔 곳을 만나면 반드시 가서 유완허다가 만일 용외 아롭다운 부녀를 보면 제 그 집으로 싸라가는지라. (20:94, 95) (若論花沖的形景, 也是少年公子模樣, 却是武藝高強, 因他最愛

20) 路雲亭은 花俠을 일종의 색깔기질을 가진 협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 자체부터도 적절하지 않다. 물론 盜俠이나 匪俠이라는 용어도 앞뒤가 모순되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은 우리말에 의 '의적'과 비슷한 용어이다. 그러나 화충은 부녀를 납치 강간하는 부류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의로운 협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용어라 하겠다. 『忠俠, 花俠, 匪俠—清代武俠小說人物羣落性類型』, 『古典文學知識』, 1992, 5, 71-78쪽 참조.

採花, 每逢夜間出入, 鬢邊必簪一枝蝴蝶, 因此人皆喚他是花蝴蝶, 每逢熱鬧場中, 必要去遊玩, 若見了美貌婦女, 他必要下工夫, 到了人家採花.) (60회 427쪽)

사람들이 화충을 화호접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가 호접 모양의 비녀를 귀밑에 꽂기 때문이다.<sup>21)</sup> 그는 꽃과 같은 여자를 따르기를 좋아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항상 그 여자를 따라가서 차지하고 만다. 그런데 그가 한 번은 觀音菴의 비구니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비구니를 설득하고자 하였다. 마침 그곳에 들렀던 韓彰이 화호접을 사로잡으려 하였으니 오히려 독을 바른 암기에 맞고 만다.

화충은 여자들을 울리는 나쁜 인간이지만 의외로 순진한 마음이 남아 있음을 드러낸다. 鐵嶺觀의 도사 吳道成과 말하는 대화 속에는 관음암의 비구니를 사모하여 죽이지도 못하고 핍박하지도 못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또 화호접이 니르더, “더거는 아지 못호는도다. 니 저를 본 후로보터 신혼이 부정호며 폐침망찬호거늘 편벽도제 제 고괴호 성품으로 일항 좃지 아니호니 만일 다른 녀인갓더면 니 쏘호 죽엿실 거시로디 오죽 저는 쇼데 다만 춤마 죽이지 못호 썩 아니라 정히 저를 핍박호기도 어려오니 엿지호면 조호리오?” (21:61, 62) (又聽花蝶道 “大哥, 你不曉得, 自從我見了他之後, 神魂不定, 廢寢忘餐, 偏偏的他那古怪性兒, 決不依從, 若是別人, 我花沖也不知殺却了多少, 惟獨他, 小弟不但捨不得殺他, 竟會不忍逼他, 這却如何是好呢?”) (제63회 442, 443쪽)

北俠 歐陽春은 화충의 나는 듯이 걷는 재주를 보고 좋은 일에 쓰지 않음을 애석하게 여긴다. (제65회) 또 화충에게 영웅의 기운이 있기는 하지만 두 눈에 살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

초일의 구양춘이 헤히 화상으로 더브리 방장의서 바둑을 두더니 홀연 보미 외면의서 일위 공지(公子) 드러오디 의복이 화려호고 용모 준수호며 슈중의 마편을 가졌더니 화상으로 더브리 집슈호거늘 헤히 련망히 안부롤 무르며 쇼화상이 차롤 드리고 설화호니 원리 일기 무성(武生)이오 성은 호(胡)니 특별이 와서 좀시 우관을 정호고 친지인을 초즈려 호미라. 구양춘이 것히서 조세히 보미 초인이 얼골의 일단 영웅의 기운이 이시디 다만 낭안의 슬기 잇서 심히 아롬답지 못호지라. 가마니 니르더, ‘가석호른 니런 인

21) 蝴蝶은 즉 나비이고 나비는 남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만 화충의 경우는 여자의 정조를 빼앗고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명백하게 악인이다.

물이 일뿔 눈의 술기 잇시므로 인하여 큰 힘이 되고 또 인당의 악귀를 쫓여시니 필연 불량(不良)한 스승이로다.’ (22:44-46) (這日北俠與和尚在方丈裏下棋。忽見外面進來一位貴公子。衣服華美。品貌風流。手內提定馬鞭。向和尚執手。慧海連忙問訊。小和尚獻茶。說起話來。原是個武生。姓胡。特來暫租寓所。訪探相知的。北俠在旁細看。此人面上一團英氣。只是二目光芒。甚是不佳。暗道：“可惜這樣人物。被這一雙眼帶累壞了。而且印堂帶煞。必是不良之輩。” (제65회 456, 457쪽)

화충은 치밀한 두뇌와 잔인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다. 그가 이전에 蔣平에게 공격을 당하여 죽을 뻔하였지만 어두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공격한 상대의 몸집과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화호점이 니르디. “디거는 이지 못흐느니 다만 텃녕관(鐵嶺關)의셔 쇼데 스름의 음험을 넘어 거의 성명을 상홀 번 흐엌더니 추후 월하의 비록 진격히 보지 못혀여시나 그 몸이 슈척하고 거롭이 편첩흐믈 보미 이 도스와 즈똥 방블흐지라. 니리므로 쇼데 저를 힐문코즈 호노라.” (22:79) (花冲道：“大哥有所不知。只因在鐵嶺關小弟被人暗算。險些兒喪了性命。後來在月光之下。雖然看不真切。見他身材瘦小。脚步伶便。與這道士頗頗相仿。故此小弟倒要盤問盤問他。”) (제66회 464쪽)

화충은 자신의 처지가 불리하자 鄧車에게 투신하러 가려고 결심한다. 등거의 생일이 가까움을 알고 勾員外 집의 寶珠燈을 훔치다가 실패하여 사로잡혔는데 病太歲 張華에게 구출을 받아 등거에게로 가게 된다. 등거의 저택에 갔다가 도사로 분장한 蔣平을 보게 된다. 화충은 자신을 공격한 장평에 대해 증오심을 가지고 있으며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잔인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도사로 분장한 장평을 의심하고 그를 매질하여 성한 곳이 없게 만든다. (67회) 이후에 화충은 蔣平에게 사로잡혀서 開封府의 包拯에게 보내지는데 의외로 자신의 죄를 모두 시인하고 처벌받게 된다. 그가 자신의 죄를 은폐하지 않고 순순히 시인하는 모습은 앞서 소개되었던 영웅적인 기상과 부합되는 면이라고 볼 수 있겠다.

## 5. 맺는 말

낙선재 필사본 『忠烈義俠傳』은 清代 『忠烈俠義傳』 120회를 한글 고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 작품의 주제는 충렬과 협의를 선양하는 것으로 충과奸의 갈등을 통하여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작품 중에서 악인들은 충렬과 협의를 돋보이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유형은 황제의 숙부, 인척, 탐관오리, 지방 호족 등의 여러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권력의 핵심에 근접하고 있다. 龐吉 부자는 황제의 인척으로서 오만방자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충렬의 대표자인 包拯을 암살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한다. 이들은 권력의 실세로서 민생을 구제하는 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욕만을 추구하고 있다. 馬強은 탐욕스러운 호족으로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협의인물들이 위증까지 만들어서 참살시키는 인물이다. 마강이 비록 지방 세력이긴 하지만 招賢館을 짓고 영웅을 끌어 모은 행위는 명백한 월권 행위인 것이다. 襄陽王은 간악함의 최고봉으로 '五義' 중의 하나인 白玉堂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그는 황숙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온갖 수탈을 자행하여 협의인물들이 그를 징벌하도록 만들고 있다. 鍾雄은 본래 양양왕의 오른팔이었지만 협의를 숭상하는 인물로 歐陽春과 智化의 교화를 받아 회개하고 협의인물 편으로 합류하게 된다. 鄧車는 양양왕 집단의 한 사람으로 顏查散의 印信을 훔쳐내는데 성공하지만 안사산의 암살에는 실패하고 있다. 花冲은 비록 영웅적 기질이 엿보이긴 하지만 음란한 행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악인 유형들은 악한 사고와 행위를 실행하지만 궁극적으로 실패로 끝나고 만다. 또한 그들의 행위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충렬협의 인물들과 비교하여 훨씬 열등한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參考文獻>

- 石玉昆 編, 『三俠五義』 上·下, 桂冠圖書, 1988.
- 姜周完, 『『三俠五義』 研究』, 연세대 석사논문, 1993. 2.
- 鄭東補, 『清代俠義小說研究』, 전남대 박사논문, 1995. 2.
- 김명신, 『清代 俠義愛情小說의 研究』, 고려대 박사논문, 2000. 6.
- 高淑姬, 『包公 公案小說 研究-『百家公案』과 『龍圖公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3. 8.
- 朴在淵, 『조선시대 중국 통속소설 번역본의 연구』, 외국어대 박사논문, 1993. 2.
- 朴在淵, 「조선시대 공안협외소설 번역본의 연구」, 『中語中文學』 제25집, 1999. 12.
- 張國風, 『公案小說變話』, 江蘇古籍出版社, 1995.
- 曹亦冰, 『俠義公案小說史』, 浙江古籍出版社, 1998.
- 王 立, 『中國古代復仇文學主題』,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8.
- 路雲亭, 「忠俠, 花俠, 匪俠-清代武俠小說人物墮落性類型」, 『古典文學知識』, 1992. 5.
- 邱培成, 「江湖俠客已無多-從『三俠五義』看晚清文學作品中的俠」, 『武警工程學院學報』 제17권 제1기, 2001. 2.
- 黃 克, 「『忠烈俠義傳』의 再認識」, 『文藝研究』 2001. 제3기.
- 李 軍, 「『三俠五義』及續書藝術特色一二」, 『湖北師範學院學報』 제22권, 2002. 제1기.
- 苗懷明, 「『三俠五義』與『小五義』『續小五義』關係辨」, 『信陽師範學院學報』 제19권 제3기, 1999. 7.
- 김명신, 「악녀, 숙녀 그리고 俠女」, 『中國小說論叢』 19집, 2004. 3. 27.
- 姜鯨求, 「중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악인연구-老舍의 『四世同堂』과 巴金的 『家』를 중심으로」, 『中國現代文學』 제23호, 2002. 12.

<中文提要>

在分析樂善齋本『忠烈俠義傳』的惡人形象之前, 有必要先簡要說明一下樂善齋本『忠烈俠義傳』. 樂善齋本『忠烈俠義傳』是把清代石玉昆的『忠烈俠義傳』120回翻譯成韓文的. 這部作品的主題是爲了表揚忠烈俠義, 通過忠奸的鬭爭更鮮明的表現出來的. 在這部作品中惡人是把忠烈俠義襯托着的人物, 其類型是以皇帝的叔父·姻戚·貪官污吏·地方豪族等諸類型人物來構成的. 龐

吉父子是皇帝的姻戚，他們有傲慢放恣的性子，爲了暗殺忠烈的代表包拯(包公)計劃了許多次。他們是權力之中心，絕不關心救濟人民之苦難，只有關心追求私利私慾。馬強是地方豪族出身，非常貪慾、有無所不爲的能力，結果俠義人物作出偽證誅殺他。馬強作了招賢館，引出英雄好漢，這些的行爲就是明明白白的越俎代庖。襄陽王是奸惡之最高峰，把五義之中一個白玉堂殺害了，他雖然是皇帝的叔父，從老百姓搶奪了很多，讓俠義人物懲罰他的行爲。鍾雄本來是襄陽王的幫手，崇尚俠義的人物，受到歐陽春和智化的教化改邪回正。鄧車是襄陽王的左右，把顏查散的印信偷出來，後來他要殺害顏查散，終於失敗了，表露出襄陽王的弱點。花沖雖然是具有英雄之氣，因淫亂的行爲而受到刑罰。這些惡人類型要實行邪惡的思考和行爲，結果他們之惡行沒有實現，他們之行爲是提供笑話，描寫得比起忠烈俠義人物更劣等的人物。

關鍵詞 忠、善、惡、鬭爭、俠客、惡人形象、英雄